논어 7편 술이 19장 · 원문·풀이

# 子曰：「我非生而知之者，好古，敏以求之者也。」

독음 · 자왈 아비생이지지자 호고 민이구지자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, 옛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히 구해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我 자기 아 아 / 非 아닐 비 비

生 날 생 생 / 而 말이을 이 / 知 알 지 / 之 갈 지

者 놈 자 / 好 좋을 호 / 古 옛 고 고 / 敏 민첩할 민 민

以 써 이 이 / 求 찾을 구 구 / 也 어조사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